2019년 6월 17일

EBEST EDGE Investment Strategy 중국/상품코멘트

최진영's China/Commodity Trends

중국 경기지표 발표, 다시 시작되는 불안? 다시 꺼내든 추가 부양

China / Commodity
최진영
02 3779 8689
jychoi@ebestsec.co.kr

부진한 5월, 다시 꺼내든 추가 부양 카드

5월 경기 지표가 발표됐다. 지난달 낙폭이 컸던 소매판매는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했다. 반면, 고정자산투자는 하락 전환했으며, 산업생산은 17년래 최저 수준으로 후퇴하는 등 불확실성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이 추세적으로 지속될 것이란 확대해석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경기지표 발표에 앞서 중국정부는 이미 다음과 같이 추가 부양책들을 발표함으로써 적극적인 대응을 선언했다.

①소비: 6월 6일 발개위(NDRC)는 소비 촉진을 위해 **자동차 구매 규제 조치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5월말 광둥성만이 시행한 정책이 이제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하반기 소비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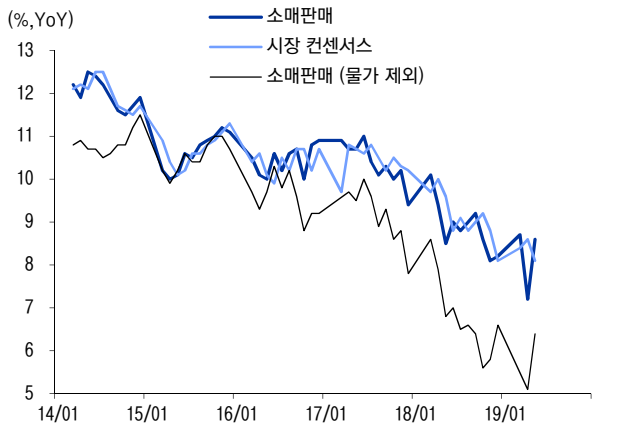
②제조업 경기: 14일 인민은행은 **재할인/SLF(단기유동성지원창구) 한도를 각각 2천억과 1천억위안씩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美中 무역갈등이라는 불확실성은 제조업 경기의 센티에 여전히 큰 걸림돌이다. 하지만 보다 완화된 통화정책은 기업의 신용경색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제조업 경기의 추가 하락을 방어하는 역할로 작용할 수 있다.

③투자: 11일 국무원은 **<지방정부 특정채권 발행 및 사업 자금조달 지원 위한 방안>이라는 추가 부양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가 주요 인프라(고속철도, 고속도로, 전력망, 가스공급 인프라)에 활용되던 지방정부 특정채권은 사업 자본금에 포함하여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레버리지를 유도하게끔 마련했다. 이외 10년 이상 만기 특정채권 발행 장려와 부채비중이 다소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부채잔액을 확대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대출 연장을 허용했다.

중국 내에서는 이번 조치로 해당 사업의 레버리지가 5배 가량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9월말까지 특정채권이 조기 발행되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 + 7월부로 적용되는 인프라건설사업 심사기간 단축(평균 200일 → 120일 이하)**까지 고려할 경우, 인프라 투자의 부진 우려는 기우에 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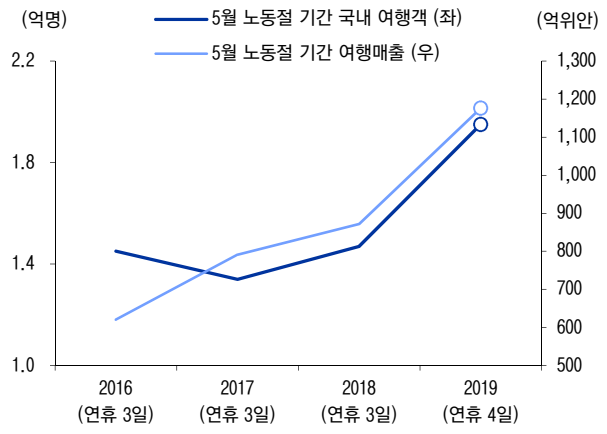
앞서 7일 이강 인민은행 총재는 美中 무역갈등이라는 불확실성이 증폭될 경우 금리 또는 지급준비율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이를 상쇄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분명 중국 경기지표는 부진하게 나왔다. 하지만 작용 반작용 법칙처럼 이를 상쇄하기 위한 중국정부의 발 빠른 대응을 놓고 본다면 향후 불확실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 한 동안 불확실성이라는 잡음은 계속될 수 있다. 그러나 정책 효과가 본격화되는 하반기부터 이러한 잡음은 후퇴할 것이며, 지금의 경기 하방압력 우려는 다시 반등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환될 것이다.

그림1 5월 소매판매, 시장 컨센서스 + 전월치 모두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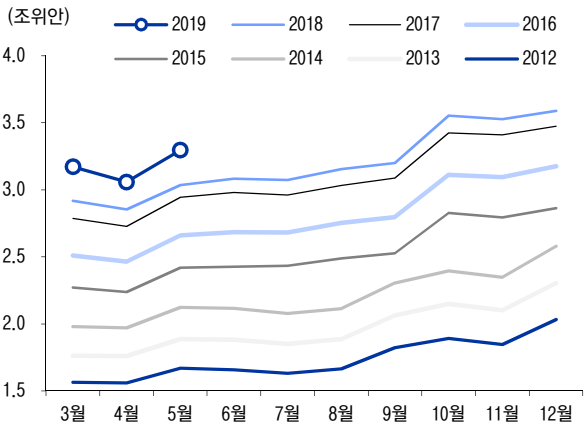
자료: CEIC,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5월 노동절 효과가 일부 소비에 기여한 것은 분명 사실



자료: 중국 문화여행부,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소매판매, 물가 + 계절성 요소 제외하더라도 양호한 성적



자료: CEIC,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6월 발표된 자동차 구매 제한 해제로 향후 소비 기여 기대

中华人民共和国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关于印发《推动重点消费品更新升级 畅通资源循环利用实施方案（2019-2020年）》的通知

发改产业〔2019〕967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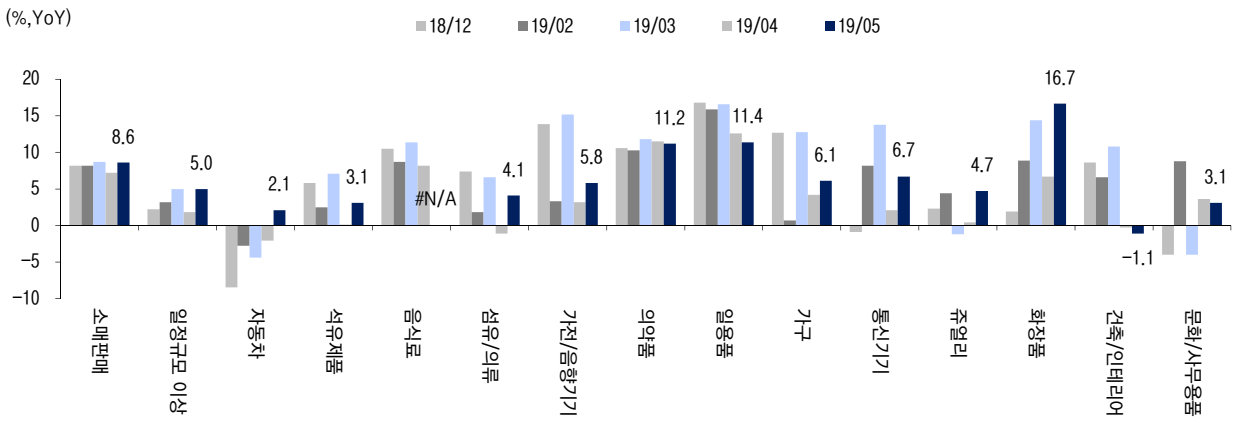
各省、自治区、直辖市及计划单列市、新疆生产建设兵团发展改革委、生态环境厅（局）、商务主管部门：

为贯彻落实中央经济工作会议精神和政府工作报告部署，进一步推动重点消费品更新升级，畅通资源循环利用，促进形成强大国内市场，国家发展改革委会同有关部门共同研究制定了《推动重点消费品更新升级 畅通资源循环利用实施方案（2019-2020年）》。现印发你们，请结合本地区本部门实际，认真抓好贯彻落实。

国家发展改革委
生态环境部
商务部
2019年6月3日

자료: 중국 발개위(NDRC),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제품군별 소매판매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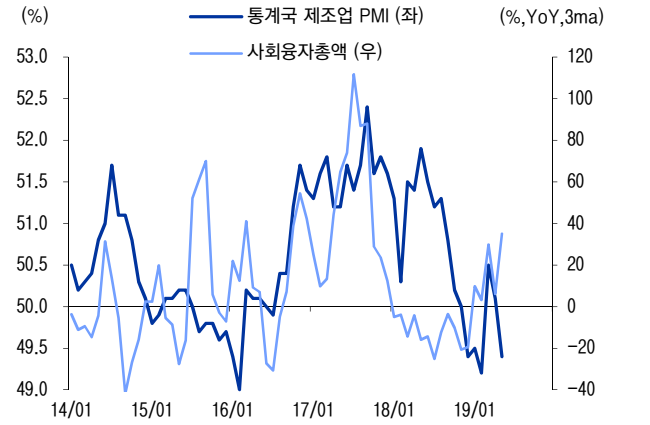


자료: CEIC,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5월 산업생산, 신용경색 + 무역갈등 영향 작용 중

자료: CEIC,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인민은행, SLF 한도 완화 통해 신용경색 문제 해소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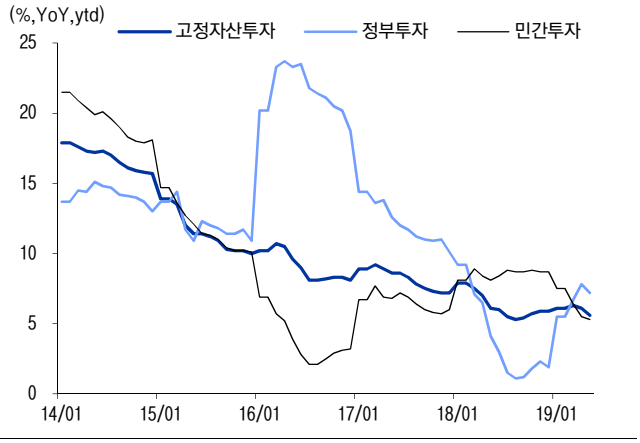
자료: CEIC,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표1 5월 산업생산 부문별 세부지표

구분	증감율(%,YoY)												5월 지표 MoM(%p)
	18/05	18/06	18/07	18/08	18/09	18/10	18/11	18/12	19/02	19/03	19/04	19/05	
산업생산	6.8	6.0	6.0	6.1	5.8	5.9	5.4	5.7	5.3	8.5	5.4	5.0	-0.4
광산업	3.0	2.7	1.3	2.0	2.2	3.8	2.3	3.6	0.3	4.6	2.9	3.9	1.0
제조업	6.6	6.0	6.2	6.1	5.7	6.1	5.6	5.5	5.6	9.0	5.3	5.0	-0.3
유틸리티	12.2	9.2	9.0	9.9	11.0	6.8	9.8	9.6	6.8	7.7	9.5	5.9	-3.6
식품/농산물 가공	3.2	5.9	6.9	6.0	5.5	4.7	2.2	5.9	6.3	5.7	3.4	4.4	1.0
식품	5.6	5.0	6.2	5.3	4.5	7.7	8.6	8.5	6.0	4.8	5.6	4.6	-1.0
방직	-1.5	-0.1	0.6	0.0	0.8	1.1	1.5	0.2	0.2	9.0	-1.8	0.7	2.5
화학	4.3	2.9	3.5	4.8	5.0	4.4	1.9	1.8	4.3	7.1	3.4	3.5	0.1
의약	10.9	10.2	8.1	8.3	9.7	7.0	6.6	8.8	5.9	6.9	9.1	5.6	-3.5
고무/플라스틱	2.7	3.8	3.7	2.0	2.2	2.4	1.2	3.7	2.2	12.6	-0.2	5.1	5.3
비금속	2.6	3.7	5.2	5.2	5.2	7.7	6.9	8.8	8.8	15.4	9.8	9.9	0.1
철강	7.4	7.8	6.6	5.9	10.1	10.1	10.4	9.2	7.5	8.5	11.5	11.7	0.2
비철금속	5.9	4.0	5.6	9.5	9.8	8.7	12.8	13.2	9.3	11.1	8.9	9.4	0.5
금속품	2.5	1.4	2.5	4.4	3.7	3.1	3.9	4.0	8.5	14.6	3.3	6.5	3.2
범용설비	6.6	6.8	6.9	5.9	6.1	6.8	6.7	6.5	4.4	14.1	2.0	2.5	0.5
전용설비	9.6	11.5	11.2	9.8	9.7	8.1	12.4	11.7	10.0	16.4	2.8	4.9	2.1
자동차	13.2	14.0	6.3	1.9	0.7	-0.7	-3.2	-4.1	-5.3	2.6	-1.1	-4.7	-3.6
운수설비	2.5	0.7	-1.9	-0.5	2.4	5.0	12.7	13.8	7.9	13.6	5.8	8.3	2.5
전기기계	6.4	3.8	5.7	3.3	5.2	6.8	9.0	10.1	8.0	15.2	7.1	8.8	1.7
통신장비	13.5	10.9	13.5	17.1	12.6	14.6	12.3	10.5	6.0	10.2	12.4	10.6	-1.8

자료: CEIC,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5월 고정자산투자, 시장 컨센서스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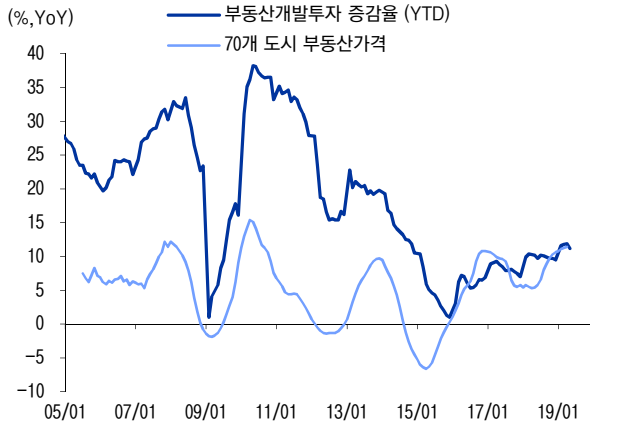


자료: CEIC,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4개월 연속 둔화했던 제조업 투자는 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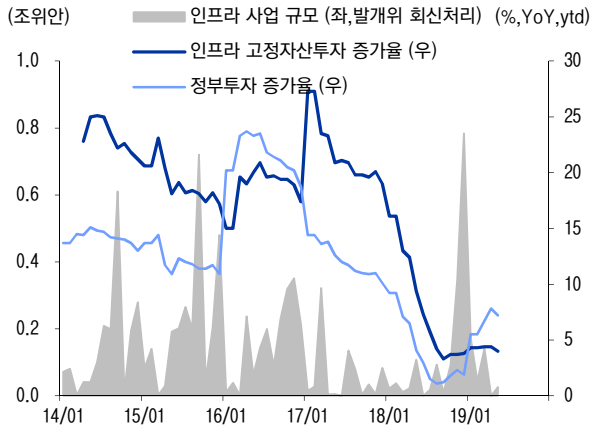
자료: Wind,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부동산개발 투자는 안정적인 모습 유지 중



자료: Wind,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1 인프라 투자 증가율의 둔화는 가장 큰 우려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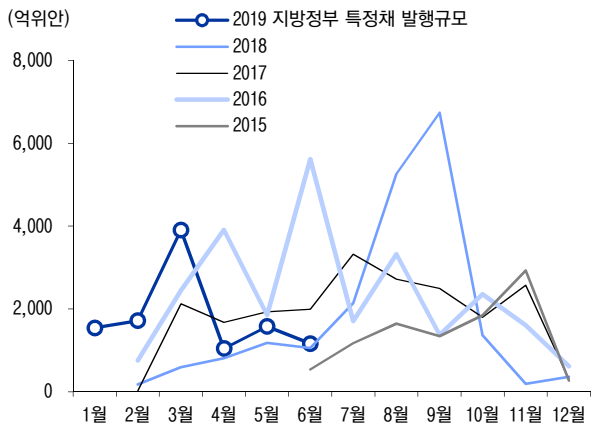


주: 시행성 연구, 비준, 계획 등 전체 인프라 사업 심의 종합
자료: 중국 발개위(NDRC), CEIC,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2 국무원, 지방정부 특정채 발행 지원 위한 추가 부양 발표

자료: 중국정부 공식 사이트,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3 9월말까지 조기 발행 고려 시, 인프라 안정적 반등 기대



자료: 중국 재정부,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중국 통계국, 2019년 5월 경제현황 기자회견 (2019년 6월 14일)

Q1. 이번 5월 소매판매 이외 경기 지표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원인에 대해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5월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1. 월간 경기 지표의 변화는 정상적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가 입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5월 중국 경기는 안정된 상황에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생산은 안정 속 앞으로 나아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비스 생산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5월 서비스 생산지수는 +7.0%yoy 증가했으며, 올해 7% 이상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보전송, S/W, 정보기술 서비스, 리스, 비즈니스 서비스업 등 현대 서비스업의 성장률 역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비스업 매출과 이익을 보면 1~4월 9% 이상의 높은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5월 서비스업 경영활동지수는 53.5%로 전월비 +0.2%p 상승했습니다. 제조업을 보면 구조 변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1~5월 6%의 안정적인 성장세가 지속됐습니다. 이 가운데, 기술함량과 부가가치가 비교적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높은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5월 첨단기술 제조업은 +9.4%yoy로 높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②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5월 소매판매는 전월비 +1.4%p 상회한 +8.6%yoy 증가했습니다. 물가 변동 요인을 제외할 경우, 5월 소매판매는 +6.4%yoy로 전월비 +1.3%p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요식업 매출액은 +9.4%yoy로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수출 상황을 보면 +7.7%yoy로 전월비 +4.6%p 증가했습니다. 유로존, ASEAN 등 주요 지역에 대한 수출이 확대됐으며, 무역흑자 역시 대폭 확대됐습니다. 1~5월 일대일로 연선 국가들간 수출입 증가율은 +9%yoy로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며, 이는 전체 수출입 가운데 28.8%로 전년 동기대비 +1.3%p 확대됐습니다.

③고용과 물가는 여전히 안정된 수준입니다. 5월 도시 조사실업률은 5%로 안정된 상황입니다. 1~5월 도시 신규고용은 597만명으로 올해 목표치 대비 54% 달성한 상태입니다. CPI 역시 안정된 모습을 유지 중입니다. 5월 CPI는 +2.7%yoy이며, Core CPI의 경우 +1.6%yoy로 수급이 전반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④혁신 성장동력이 강화됐습니다. 1~4월 특허 신청건수는 43.9만건으로 긍정적인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1~5월 첨단기술 산업 투자 증가율은 +11.9%yoy로 이 가운데, R&D 설계 서비스 투자 증가율은 +27.1%yoy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제조업 기술개선 투자 증가율은 +15%yoy로 집계됐으며, xEV, 태양전지와 같은 신제품 역시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5월 중국 경기는 안정된 수준을 유지했으며, 안정 속 앞으로 나아가는 추세입니다. 물론 **외부 불확실성과 중국 내 성장 불균형 문제라는 악조건이 여전히 상존**해 있습니다. **그렇기에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의 정책 결정에 따라 향후 6가지 안정(성장 안정, 개혁 촉진, 구조조정, 민생 우대, 리스크 예방, 안정 유지) 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을 촉진**시키겠습니다.

Q2. 올해 들어 돈육과 채소, 과일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5월 CPI는 +2.7%yoy까지 상승했습니다. 반면, PPI는 +0.6%yoy로 둔화됐습니다. 하반기 CPI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십니까? PPI는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으로 보십니까?

A2. 5월 CPI는 +2.7%yoy로 전월비 +0.2%p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Core CPI는 +1.6%yoy로 식품/에너지 가격을 제외할 경우 비교적 안정된 수준을 보였습니다. 5월 CPI 상승의 주된 원인은 식품이었습니다. 채소의 경우 +13.3%yoy 상승했으며, 신선과일 CPI는 +26.7%yoy 상승했습니다. 돈육 CPI는 +18.2%yoy 상승했습니다.

채소 가격의 변화 원인은 바로 기후에 따른 공급부족 현상 때문입니다. 신선과일 역시 재고 감소가 커다란 영향을 주었습니다. 돈육 가격의 변화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그 원인입니다. 그러나 향후 추세를 본다면 채소 공급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5월 채소 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전월비 -7.9%p 감소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새로운 과일들이 유통될 예정입니다. 공급 확대로 가격 안정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하계기간 공급우위가 예상**됩니다. 돈육 가격은 전월비 -0.3%p 둔화됐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가격은 여전히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식품 가격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시장의 공급은 여전히 충분한 상태**입니다. 의류 지표는 전월비 소폭 상승했습니다. 가전기기, 교통 CPI는 전월비 소폭 둔화했습니다. 서비스 가격은 2%의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상황을 보면 5월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수입성 요소는 축소됐습니다. 통화 조건을 보면 공급은 안정된 수준을 유지 중입니다.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을 위한 조건은 아직까지 갖춰지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보면 가격은 여전히 안정된 수준입니다.

Q3. 5월 소매판매 지표가 크게 개선됐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5월 노동절 효과 때문 입니까? 향후에도 소매판매 증가율의 現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A3. 5월 소매판매는 전월비 +1.4%p 증가한 +8.6%yoy로 크게 개선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 관계자 모두 5월 노동절 기간 조정에 따른 소비 효과에 주목했습니다. **긴 연휴로 인한 소비 효과가 큰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해당 요소를 제외하더라도 5월 소매판매가 안정된 수준을 유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월 소매판매가 크게 개선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생활필수품 소비가 +10%yoy 이상 증가했습니다. ②제품 소비가 개선됐습니다. 화장품, 통신기기 등 지표 호전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③1~5월 온라인 소매판매는 +21.7%yoy 성장했습니다. 전체 소매판매를 +10%p 이상 상회하는 수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④자동차 소비가 플러스(+)로 전환됐습니다. 지난 4월 -2.1%yoy였던 자동차 소비는 5월 +2.1%yoy로 반전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상 모든 것들이 5월 소매판매를 이끌었던 원동력입니다.

실제로 소비 확대의 변화에는 경기라는 중요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경제는 심각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GDP 내 최종소비지출 비중은 8년 연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소는 다음 몇 가지가 있습니다.

①국민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했습니다. 고용 우선 정책이 큰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신규고용은 6년 연속 1,300만명 이상 수준을 유지했으며, 이는 소비의 가장 중요한 기반을 만들어줬습니다(2008년 중국 전체 고용 중 국영기업 비중 60%, 2018년 현재 민간/외자기업 비중 60%).

이와 함께,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의 소득분배 정책 개선으로 중산층이 안정적으로 증가했으며, 이들은 지금의 소비를 이끄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올해 1/4분기를 보면 1인당 가처분소득은 +6.8%yoy로 지난해 전체 증가율 대비 +0.3%p 확대됐습니다.

②소비 성향의 전환이 가장 큰 요소입니다. 과거 중국의 대부분 소비는 일반 생활용품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가처분소득이 향상됨에 따라 소비가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소비의 방향은 고급 브랜드와 서비스 소비 증가로 연결됐습니다.

엥겔지수는 30%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1인당 거주면적은 30㎡까지 도달했습니다. 특히, 최근 소비 트렌드는 교육, 헬스케어, 문화 등으로 빠르게 변화했습니다. 5월 노동절 기간 소비를 보면 여행매출은 +10%yoy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소비 발전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③사회보장 시스템 개선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과거 사회보장 시스템이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부분은 매우 협소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의 시스템 개선을 통해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2018년 양로보험 커버 대상은 9억명을 초과했습니다. 의료보장 커버 대상 역시 13억명을 초과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국민을 위한 의료보험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양로보험금 기준은 매년 제고되고 있습니다. 질병보험 결산비율 역시 제고됐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국민들의 소비 여력이 확충됐습니다.

④소비 모델의 변화는 가장 큰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IT의 빠른 발전으로 온라인 쇼핑이 보편화 됐습니다. 온라인 쇼핑은 농촌 지역과 변경지역의 소비까지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IT 발전 과정에서 인터넷 교육, 인터넷 의료 등 프로그램이라는 새로운 소비 모델까지 생겨났습니다. QR코드, NFC 등 새로운 지불 방식은 소비의 편리성을 증진시켰습니다. 향후 중국의 소비는 더욱 확대될 것이며, 소비 구조 역시 더 큰 변화를 보일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더욱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중국의 소비에서 공급은 수요와 그 변화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와 관련된 조치를 통해 소비 잠재력을 더욱 일깨울 것입니다.

Q4. 5월 도시 신규고용 증가율이 3개월 연속 둔화됐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무역 갈등 영향이 중국의 신규고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A4. 올해 중국의 고용은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시 신규고용과 도시 조사실업률 지표를 보면 모두 안정된 수준을 유지 중입니다. 중국의 고용은 2년 연속 안정된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질문하신 부분에 있어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①중국은 중고속 성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GDP 성장률 평균치는 6~7% 수준입니다. 성장률이 나오기 때문에 고용 확대가 동반되는 것입니다.

②구조조정은 많은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2년간 서비스업의 발전은 제조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서비스업 종사자는 지난해 대비 1천만명 증가한 3.6억명에 달했습니다. 서비스업의 빠른 성장은 고용의 점진적 확대를 일으켰습니다.

③지난 2년간 작은 정부, 정부의 역할 축소를 통해 기업들에게 우호적인 경영환경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보다 적극적인 혁신과 창업을 유도했습니다. 새로운 산업의 고용이 확대됐습니다. 1~5월 신규기업 등록수는 286만곳으로 일평균 1.89만곳에 달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우호적인 경영환경 제공과 이에 따른 새로운 기업 증가는 새로운 고용을 유발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④고용 우선정책을 바라봐야 합니다. 올해 중국 국무원은 고용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놓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의 고용 중시 정책이 바로 그것입니다. 올해 들어 대학생, 농민공, 퇴역군인 등을 위한 고용 지원이 더욱 확대됐습니다. 실업보험기금 1천억위안은 전문기술 육성에 투입됐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고용을 안정시켜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고용 상황은 향후에도 안정적인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5. 지난 2개월 동안 일부 주요 지표가 둔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향후 추세를 어떻게 보십니까?

A5. 월간 지표의 변화는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중장기적 방향과 성장 추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더 중요하겠습니다. 1~5월 중국 경기는 성장, 고용, 물가, 국제수지 등 모든 지표를 볼 때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5월 산업생산은 +6%yoy의 성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서비스업 지표는 +7.3%yoy의 성장세를 유지 중입니다. 도시 조사실업률은 5% 수준에 불과합니다. 1~5월 CPI는 +2.2%yoy로 안정된 수준입니다. 국제수지를 보면 무역흑자가 개선 중이며, 외자 유입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성장의 뒷배경입니다. ①중국은 광활한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경제는 글로벌 2위의 국가입니다. 2018년 GDP는 90조위안을 돌파했으며, 글로벌 경제 비중은 15%를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경제 규모에도 매년 6~7%의 중고속 성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발전 공간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러한 성장은 내수에 크게 의존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2018년 경제성장에서 내수의 기여도는 108.6%에 도달했습니다. 1/4분기 최종소비지출의 기여도는 65%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중국경제가 커다란 탄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②대외개방의 기회가 여전히 많다는 점은 앞으로의 성장 여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은 자유무역과 다자무역의 수호자를 계속 자처할 것입니다. 중국정부는 적극적인 대외개방을 추진할 것입니다. 공생이라는 원칙을 계속 유지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일대일로 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1~5월 수출입에서 일대일로 연선 국가들간 교역은 +9%yoy 증가했습니다. 외자는 +6.8%yoy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발전 과정에서 국제교류를 지속하고 있으며, 공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입니다. 지난해 제 1차 수입박람회가 개막했었습니다. **올해 제 2차 수입박람회가 개막할 예정입니다. 세계 각국과 교류할 것이며,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③산업의 구조적 전환 여력이 매우 큽니다. 중국의 산업 구조의 발전은 세계경제 발전을 근간에 두고 있습니다. 3차 산업 비중은 2012년 처음으로 2차 산업을 넘어선 후 현재 50%를 초과했습니다. 선진국의 서비스업 비중은 70% 이상 수준입니다. 지난 몇 년간 중국의 현대 서비스업의 성장 속도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서비스업의 성장 여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은 아직 산업화를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중국 제조업의 산출량은 세계 1위에 도달했으나, 대부분 제조업은 여전히 중저급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 구조조정을 통해 첨단산업으로의 전환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중국 제조업의 성장 여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최근 5G 상용화로 제조업의 성장 여력은 더욱 커질 것이며, 효율성 역시 제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G의 성장은 스마트폰 제조, 사물인터넷 등 분야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며, 중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현재 중국경제는 여전히 안정된 수준에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중국경제의 기존 방향은 계속될 것이며, 양호한 추세가 지속될 것입니다.

Q6. 부동산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현재 정부는 내수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개월간 중국의 부동산개발 투자는 +11.2%yoy 증가한 4조 6,075억위안으로 집계됐습니다. 증가율은 전월비 -0.7%p 둔화됐지만 지난해 전체 증가율과 비교한다면 +1.7%p 확대된 수준입니다. 중국 분양주택 판매면적은 -1.6%yoy 감소했으나, 판매액은 +6.1%yoy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향후 재고 감소 가속화를 의미하는 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시장이 다시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그렇다면 내수확대의 동력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A6. 부동산 투자의 변화는 시장 관계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이슈 가운데 하나 입니다. 올해 들어 부동산 투자 증가율은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5월 부동산개발 투자 증가율은 +11.2%yoy 증가했습니다. 지난 1~4월 대비 -0.7%p 둔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면 지난 4월 70대 도시 신규주택 가격은 1~3선 도시 모두 전월비 +0.5~0.8% 가량 상승했습니다. 기존주택의 경우 역시 +0.4~0.6% 가량 상승하는 등 안정된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부동산은 투기가 아닌 거주의 목적이라는 기조 하, 토지와 부동산 가격은 일정부분 안정된 수준을 유지할 것입니다.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최진영).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